

# 신체만족도에 따른 선호의복스타일에 대한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비교

박 우 미

광주대학교 디자인학부 의상디자인 전공

## **Preferred Style of Clothing with Body Cathexis by Korean and American Female Students**

Woo-mee Park

Dept. of Clothing, kwangju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research was to analyse, for a sample of female college students by Korean and American, the preferred style of clothing with body cathexis. The respondents were 242 Korean and 145 American female volunteers, aged 18 to 27, who were enrolled at Kwangju and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nd Cornell University in the Unites States.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three sections: body size, body cathexis and the preferred style of clothing.

Sixteen items of twenty-six items of the preferred style of clothing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American. Korean students didn't like a bulky fabric and a bright color than American do. American students like a effect of accessories and clothing to emphasize my bust line and care about sleeve shape, skirt length, skirt shape than Korean do. Korean students were more dissatisfied with their body than American female students.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body cathexis and preference of tight skirt both Korean and American female students.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among body cathexis and preference of outfit and preference of garment of polished silhouette by Korean female students, a positive relationship among preference of fitted waist and design to emphasize bust line.

Key Word : body cathexis, Preferred style

## I. 서 언

신체형은 유전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되어 지고 이는 개개인마다 약간씩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어 신체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신체이미지는 자신의 신체형에 대해서 갖는 주관적·정신적인 상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의 신체형·신체상에 대해 만족을 못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남성보다 여성들 사이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 (Hendry, L.B., and Gillies, P., 1978) 신체만족도는 신체적 자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들은 대체로 의복스타일에 대한 선택과 의복에 대한 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Kaiser, S.B, 1985), 의복은 신체적 자아의 연장으로서 신체에 대한 관심이 의복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어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사회적 의미 전달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Ericken, M.K., & Sirgy, M.J., 1989) 여성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은 본인의 체형이 사회적으로 인지되는 이상적인 신체상과 차이가 많이 생길수록 커지며 (Davis, 1985) 추구하는 이상 체형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의복 등의 여러 수단을 사용하고 (황진숙, 1998) 그들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을 의복을 통해 보상받으려 한다.

여러 연구자들은 착의행동과 신체형·신체상과의 관계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행하고 있는데 Davis (1985)는 의복과 유행에 대한 관심은 자각된 체형과 관계없이 모든 그룹이 유행과 의복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Compton(1964)은 의복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환자의 약한 신체이미지의 영역을 강화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신체에 대해 민감하거나 살이 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정확하고 왜곡된 신체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Compton, N.H, 1964) Salem(1990)은 이상적인 신체상은 과거 20년 동안 가늘프고 연약하며 늘씬한 신체형이라 하였다. 신체만족도와

이상적인 신체상의 중요성, 이상적인 신체상에 대한 인지된 모순, 이상형에서 벗어나는 신체형 등의 변인과 불안감, 자기존중감과 의 관계를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상적인 신체상의 중요성이 자기존중감과 불안감 점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Davis (1985)에 의하면 여대생들의 인지된 실제형과 인지된 이상형, 신체만족도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그들의 이상체형으로 가장 가늘프형을 선택하였다. 신체만족도와 착의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Hwang & Noton(1994)는 55세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착의 행동의 여러 요인과 신체만족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착의행동과 신체만족도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신체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기성복에 대한 만족이 높고 쇼핑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의복에 대한 소비도 높다고 하였다. (Hwang, J. and Norton, M, 1994) Labat & Delong(1990)은 신체만족도와 의복의 맞음새(fit)와의 사이에 서로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수지와 이인자(1996)는 신체만족도가 높은 사람이 미니스커트를 선호한다고 보고하였고, Kim등에 의하면 본인의 자각된 신체 충실도에 따라 의복 행동 등이 영향을 받는데 특히 의복의 위장 기능이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또 신체적 자아감은 의복을 착용할 때의 의복스타일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Fisher (1973)에 의하면 의복은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어깨에 패드를 사용하거나 하이힐의 구두 등을 사용하여 신체의 일부를 확장시키고 거들이나 팬티호스등으로 신체의 사이즈를 줄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이는 스스로 느끼는 체형에 대한 이미지를 의복의 위장기능을 통해 신체에 대한 만족도를 보다 높히려 하는 수단으로 의복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다. Zamarin, D. M. (1976)에 의하면 여자들에게 있어서 신체이미지, 신체만족도와 자기존중감, 외모, 의복의 만족도와는 서로 강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

지고 있고 그 사람의 환경과 문화에 따라 신체이미지는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Ford와 Dark(1982)는 자존심이 높고 신체에 만족할수록 독특한 자기 표현을 할수있다고 하였고 황진숙(1998)은 미국여대생의 신체이미지가 의복태도, 유행혁신성 쇼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신체부위에 대한 이상적인 신체이미지가 중요할수록 또 신체특정부위에 만족할수록 의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유행혁신성의 정도가 높았으며 쇼핑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양명희(1983)는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신의 신체에 긍정적일수록 독특한 디자인이나 색을 선택하여 개성표현에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 외모와의 관계는 상징적 자기완전이론(Wicklund, R.A., & Gollwitzer, P.M., 1982), 동기이론 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상징적 자기완전이론은 개인은 완전함을 유지, 달성하려고 하는 경향으로서, 자기 확신에 대하여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전감의 추구를 위해 효율적인 문화적 상징물을 찾는다고 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의복이 자기확신을 갖도록 하는 목적으로서의 상징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체의 결점을 위장시키는 기능으로서의 의복을 사용하여 완전함을 추구하려 한다. 동기이론은 소비자에게는 독특하고자하는 심리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감이 이러한 개성이나 독특함을 유발시킬 수 있는 동기로 작용될 수 있다고 이론으로서 예를 들어, 체중이 신체만족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함으로써 체중이 의복에 대한 개성표현으로서의 동기로 작용한다.

결국,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은 외모를 좋게 하거나 의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소비자의 구매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 개인적인 생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아가서 심리적, 사회적 행복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류업체에서는 이상적인 신체형을 기준으로 의복

을 디자인, 제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복을 구매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상형에의 범주에서 벗어나고 있고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 소비자들은 기성복에 대한 디자인이나 맞춤새(fit)등에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Kefgen의 1인, 1973) 소비자들은 자신의 체형에 대해 보다 만족감을 이루기 위해 체형의 결점을 보완해주면서 이상형에 근접하게 보일 수 있는 의복스타일을 선택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의류업체에서는 소비자들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와 그에 따른 의복스타일의 선호도를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의복디자인의 효과와 판매촉진을 가져올 수 있다. 미래의 기성복 산업은 밝은 전망이 기대된다고 볼 때, 소비자들이 육체적, 심리적으로 만족 될 수 있도록, 의복은 유행과 체형과의 관계 속에서 디자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소비자들의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생각과 이에 따른 착의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치관은 동양과 서양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는바,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와 착의행동 또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환경이 매우 다른 한국과 미국의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체만족도에 따른 선호 의복스타일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대상자는 나이가 18세부터 27에 해당하는 대학생으로 하여 임의 표본추출법에 의해 한국여성은 광주와 서울의 대학생 242명과 미국의 코넬대학교 학생의 145명의 총 387명이 참가하였다. 자료수집은 설문지법에 의해 집단을 임의추출하여 총 600부를 배부하여 402부가 수집되었는데 그 중에 통계분석이 불가능한 15부를 제외한 387부가 연구를 위해 사용되었다.

측정도구는 신체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의복스타일 선호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측정도구는 박 (박우미, 1993)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질문지의 구성은 4부분으로, 신체치수(5항목), 신체 부위의 만족·불만족의 여부(4항목), 전신, 상, 하반신, 얼굴의 신체만족도(4항목), 의복스타일의 선호 (26항목)로 구성되어있다. 신체에 대한 만족·불만족의 여부는 “예”, “아니오”로 대답하게 하였고 4항목은 전신, 상반신, 하반신, 얼굴부위에 대해 Likert 5점척도에 의해, 의복스타일의 선호도는 3점 척도에 의해 대답하도록 구성되어있다. 신체만족도와 의복스타일 선호에 대한 측정도구는 O Ya & Nagagawa (1989) 등이 제작한 도구를 연구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필요한 항목을 선택,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먼저 한국어로 작성한 후 영문으로 번안하고 어패럴 디자인 전공자인 미국인에 의해 다시 수정되어 최종완성이 되었다. 측정도구에 대한 Cronbach  $\alpha$  계수가 신체만족도중 신체부위의 만족, 불만족여부에 대한 4항목은 0.6136과, 전신, 상, 하반신 얼굴의 신체만족도에 대한 4항목은 0.8290 의복선호스타일은 0.7305로 신뢰성이 인정되었다.

통계분석은 신체만족도와 의복선호스타일에 대해 평균을 구하였고, 신체만족도와 의복 선호스타일, 의복행동과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신체부위의 만족·불만족 그룹에 따른 의복스타일 선호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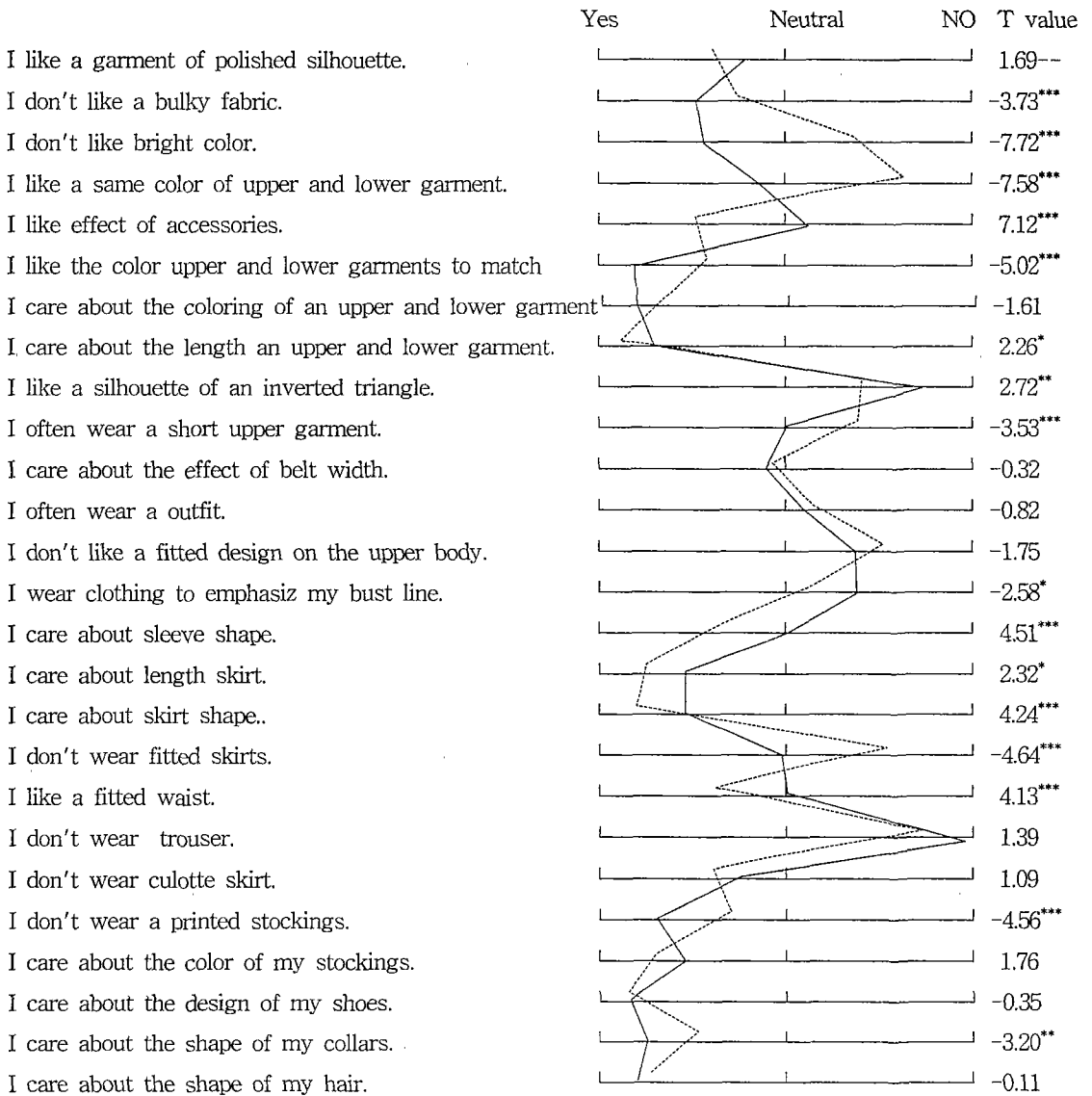
### III. 결과 및 고찰

#### 1. 결과분석

##### 1) 의복스타일의 선호도

Fig. 1은 26개 항목의 의복스타일에 대한 선호도의 프로파일과 한국과 미국여대생 비교를 위해 T-test

를 하여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공통적으로 상하의복의 조합이나 배색 길이를 고려하고 역삼각형의 실루엣을 좋아하지 않으며 스커트의 길이와 형을 고려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늬있는 스타킹은 좋아하지 않은 경향이며 구두나 칼라의 형 머리모양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고 “가슴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입는다”, “바지를 입지 않는다”, “상반신에의 타이트한 디자인은 입지 않는다”등의 항목은 “아니오”라고 많이 대답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 항목은 26개 항목 중 16개 항목으로서 한국과 미국 여대생 사이에 선호스타일에 대한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체형을 크게 하는 소재는 피한다”(p<0.001), “팽창색은 피한다”(p<0.01) “악세사리의 효과를 살린다”(p<0.001), “상하의복의 조합에 신경을 쓴다”(p<0.001), “상하의복의 길이에 신경을 쓴다”(p<0.5), “역삼각형의 실루엣을 좋아한다”(p<0.001), “상반신의 길이가 짧은 것을 주로 착용한다”(p<0.001), “가슴형을 강조하는 의류를 착용한다.”(p<0.5), “소매 쪽에 신경을 쓴다”(p<0.001), “스커트길이에 신경을 쓴다”(p<0.5), “스커트형에 신경을 쓴다”(p<0.001), “타이트한 스커트는 피한다”(p<0.001), “웨이스트는 조인다”(p<0.001), “무늬 있는 스타킹은 신지 않는다” “칼라형에 신경을 쓴다”(p<0.01)이다. 이로서 한국여대생은 미국여대생에 비해 체형을 크게 하는 소재나 색을 피하는 경향이고, 상하의복의 디자인에 신경을 쓰고 전체를 동일 색으로 하기를 좋아하며, 상반신의 길이가 짧은 것을 선호하고 무늬있는 스타킹은 좋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여성은 한국여성에 비해 악세사리의 효과를 살리기를 좋아하고 가슴형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좋아하며 의복스타일을 선택할 때 소매형과 스커트의 길이, 형을 많이 고려하고 허리는 조이는 것을 좋아하였다. 이로 볼 때 팽창소재는 한국과 미국여대생이 공통적으로 피하는 경향이지만 미국여대생이 더 밝은 색을 선호하고 신체형을 드러내는 디자인과 악세사리를 선호



\* p<0.5 , \*\* p<0.1 , \*\*\* p,0.01

————— Korean females

----- American females

(Fig. 1) Profile of preferred style of clothing selection by Korean and American females

하여 한국여성과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다

2) 신체 각 부위의 만족도와 의복스타일 선호도와의 관계

전신과 상반신 하반신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과 한국과 미국 여대생간의 유의도 검증결과와 (Table 1) 신체 각 부위의 만족도와 의복스타일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Table 2) 한국과 미국여대생의 전신만족도의 평균은 3.26 vs 2.41이고 상반신은 3.32 vs 2.39, 하반신은 3.67 vs 3.03, 얼굴은 3.18 vs 2.17 로서 한국여대생은 모두 3점 이상이고 미국여대생은 하반신을 제외하고는 3점 이하로 나타났다. 4 부위 모두에서 한국여성이 미국여대생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고 4 부위 중에 하반신에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현상은 한국과 미국여대생의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전신과 상반신, 하반신의 만족도와 의복스타일 선호도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한국여대생의 경우, 전신의 만족도가 클수록 세련된 의복을 착용하려고 하고 (p<0.05) 팽창 색은 피하지 않으며(p<0.01) 악세사리 등의 효과를 생각하며 옷을 선택한다.(p<0.05) 미국여대생은 만족도가 클수록 상반신의 길이가 짧은 것을 착용하고(p<0.05) 소매나 스커트 길이, 칼라형태에 신경을 쓴다.(p<0.05) 그리고 불만족할수록 타이트한 스커트를 피하는 경향은 한국(p<0.01)과 미국여대생간(p<0.05)에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상반신의 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보면 한국여성은 상반신에 만족할수록 가슴형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착용하고 바지를 입지 않는 기회가 많으며(p<0.05)

불만족할수록 타이트한 스커트를 피하였다. 미국여대생은 상반신에 불만족할수록 타이트한 스커트는 피하고(p<0.05), 허리를 조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p<0.05).

하반신은 한국여성의 경우 불만족할수록 체형을 크게 하는 소재는 피하고(p<0.01), 상하의복의 디자인에 신경을 쓰며(p<0.05) 역삼각형의 실루엣을 싫어한다.(p<0.05) 그리고 만족할수록 세련된 의복을 착용하려고 하고 (p<0.05) 소매쪽에 신경을 쓰며 (p<0.05), 타이트한 스커트는 피하지 않으며(p<0.001) 바지를 입지 않는 확률이 많은 것(p<0.001)으로 나타났다. 미국여성은 하반신에 만족할수록 체형을 크게 하는 소재는 피하고(p<0.01) 가슴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선호하며(p<0.01) 칼라형을 고려하고(p<0.01), 불만족할수록 타이트한 스커트는 입지 않는 것으로 (p<0.01) 나타났다.

3) 신체 각 부위의 만족·불만족 그룹에 따른 의복스타일 선호도

“나는 몸집이 크다”, “허리가 굵다”, “넓적다리가 굵다”, “엉덩이가 크다”의 이미지에 대한 불. 만족 그룹에 따른 의복스타일 선호도의 차이를 T-test로 유의도 검증을 하여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만을 제시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선호함을 의미한다.. (Table 3) “나는 몸집이 크다”의 만족도에 따른 의복스타일 선호도에 대해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은 한국여성의 경우, “바지를 입지 않는다(p<0.05), “체형을 크게 하는 소재는 피한다”(p<0.05), “소매 형에 신경을 쓴다”(p<0.05) 이고 미국여성은 “웨이스

Table 1 Body cathexis mean scores at body site and T-test results

Area	Korean(M±SD)	American(M±SD)	t-value
Total body	3.26±1.05	2.41±1.17	54.1800***
Upper body	3.32±1.13	2.39±1.18	59.3511***
Lower body	3.67±1.18	3.03±1.29	25.4178***
Face	3.18±1.05	2.17±1.02	84.3865***

scale 1=highest, 5=lowest level of satisfaction \*\*\*p<0.001

Table 2 The relationship of body cathexis and preferred clothing style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Korean N = 242)  
(American N = 145)

	total body		upper body		lower body	
	Korean	American	Korean	American	Korean	American
I like a garment of polished silhouette	.1310*	.0328	.0878	.0034	.1328*	.0103
I don't like a bulky fabric	-.2307***	.1513	-.0562	-.0464	-.2505***	.2410**
I don't like bright color	-.1357*	-.0663	-.0980	-.0533	-.0928	-.0642
I like a same color of upper and lower garment	.1841	-.0117	.1548	-.0507	.1838	.0041
I like effect of accessories.	.1521*	.0228	.0776	.0136	.2607	-.0790
I like the design of upper and lower garments to match	-.0854	-.0884	-.0682	-.1540	-.1587*	-.1395
I care about the coloring of an upper and lower garment	.0523	-.0961	.0442	-.1954*	-.0247	-.1508
I care about the length an upper and lower garment.	-.0259	.0578	.0129	-.0148	-.0281	.0662
I like a silhouette of an inverted triangle.	.1213	.0003	.0585	-.1079	.1903**	.0418
I often wear a short upper garment	-.0296	.2035	.0764	.0813	.0399	.1108
I care about the effect of belt width	-.0107	.0781	-.0236	-.0071	.0431	.1150
I often wear outfit.	.1729**	-.0185	.1232	-.0100	.1598*	.0357
I don't like a fitted design on the upper body.	.1050	-.1220	-.0717	-.0719	.0832	-.0381
I wear clothing to emphasize my bust line.	.1275*	.1768	.2239***	.1088	.0739	.2275**
I care about sleeve shape.	.1222	.1889*	.0843	.0908	.1602*	.1027
I care about length skirt.	-.0026	.1931*	.0884	.1225	-.0387	.1091
I care about skirt shape.	.0391	.1013	-.0489	-.0348	.0114	.0278
I don't wear fitted skirt.	-.2280***	-.1744*	-.1596*	-.1781*	.2213***	-.2620**
I like a fitted waist.	.0814	.1539	.0411	.2321**	.0726	.0954
I don't wear trouser	.1664**	-.1388	.1498	-.1758	.2254***	-.0213
I don't wear culotte skirt.	-.0605	-.0210	-.1220	-.0449	-.0482	.0091
I don't wear a printed stockings.	-.0325	-.0624	-.0099	-.0823	-.1589	-.0475
I care about the color of my stockings	.0898	-.0702	.0620	.0117	.0672	.0355
I care about the design of my shoes.	-.0322	-.1157	-.0956	-.1342	-.0384	-.1152
I care about the shape of my collars.	-.0238	.2110*	-.0080	.0390	-.0615	.2780**
I care about the shape of my hair.	-.0012	.0542	.0368	-.1309	-.0772	-.0542

트를 조인다”(p<0.001), “상반신의 길이가 짧은 것을 착용한다”(p<0.01)였다. 한국여성의 불만족그룹은 만족그룹에 비해 체형을 크게 하는 소재를 피하고 만족그룹이 불만족그룹에 비해 소매의 디자인을 고려하며 바지를 입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미국여대생은 허리는 대체로 조이는 것을 좋아하는데 불만족 그룹이 만족그룹에 비해 허리를 조이는 것을 싫어하고 상반신의 길이가 짧은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였다.

“허리가 굵다”의 만족도에 따른 의복스타일의 차

Table 3 The effect of satisfaction of body site on preferred clothing style

satisfaction body site	Koream		T-value	American		T-value
	perfered style	Gr. M		perfered style	Gr. M	
I am large type	I don't like a bulky fabric	1 1.37	5.4736*	I often wear a short garment	1 2.52	7.1874**
		2 1.59			2 2.13	
	I care about sleeve shape	1 2.07	4.9301*	I like a fitted waist	1 1.93	11.6404***
		2 1.84			2 1.47	
	I don't wear trouser	1 2.86	5.5124*			
	2 2.68					
My waist is thick	I don't like a bright color	1 1.77	8.3327***	I don't like a bulky fabric	1 1.65	5.1765*
		2 1.48			2 1.95	
				I often wear a short upper garment	1 2.45	5.7916*
					2 2.11	
				I like a fitted waist	1 1.89	14.5366***
				2 1.42		
My thighs are thick	I don't like a bulky	1 1.40	7.0843**	I don't wear fitted skirts	1 2.17	8.4622**
		2 1.66			2 2.59	
	I like effect of accessories	1 2.14	5.8741*			
		2 1.89				
	I like a silhouette of an inverted triangle	1 2.58	7.3563**			
		2 2.31				
	I don't wear a fitted skirts	1 1.78	8.7714**			
	2 2.11					
I don't wear trouser	1 2.88	17.8723***				
	2 2.55					
My hip are wide	I like effect of accessories	1 2.24	6.1312*	I like effect of accessories	1 1.34	6.60609*
		2 1.97			2 1.61	
	I care about the length an upper & lower garment	1 1.41	7.9244**	I like the design of upper & lower garment to match	1 1.37	6.0035*
		2 1.20			2 1.65	
	I care about the effect belt width	1 2.01	4.2879*	I care about the coloring of an upper & lower garment	1 1.18	3.9945*
	2 1.78			2 1.38		

1 = unsatisfaction group    2 = satisfaction group    Gr. = gorup

이에 대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항목은 한국여성은 “팽창 색을 피한다”(p<0.001), 이고 미국여성의 경우는 “허리를 조인다”(p<0.001), “상반신의 길이가 짧은 것을 착용한다”(p<0.05), “체형을 크게 하는 소재는 피한다”(p<0.05), 의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 한국여성은 불만족그룹이 만족그룹에

비해 팽창 색을 피하고 미국여성은 불만족그룹이 만족그룹에 비해 허리를 조이는 것을 선호하지 않고 상반신의 길이가 짧은 것을 자주 착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넓적다리가 굵다”의 만족도에 따른 의복스타일 선호의 차이를 보면 한국여성의 경우, “세련된 실루



엿의 의복을 착용한다”(p<0.01), “가슴을 강조하는 의류를 착용한다”(p<0.05), “타이트한 스커트는 피한다”(p<0.01), “체형을 크게 하는 소재는 피한다”(p<0.001), “바지는 입지 않는다”(p<0.001), “스타킹의 색에 신경을 쓴다”(p<0.5), “팽창 색을 피한다”(p<0.1), “악세사리의 효과를 살린다”(p<0.05), “역삼각형의 실루엣을 좋아한다”(p<0.1)이고 미국 여성의 경우, “타이트한 스커트는 피한다”(p<0.01)의 1항목으로 나타났다. 여러 연구자들의 결과에 의하면 “넓적다리가 굵다”에 대해서 대체로 여성들이 가장 불만족을 호소하는 부분으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여대생의 공통적으로 “넓적다리가 굵다”에 불만족그룹이 만족그룹에 비해 타이트한 스커트를 피한다고 대답하여 신체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함을 알 수 있다. 한국여대생은 넓적다리가 굵은 것에 불만족하는 그룹이 팽창소재를 좋아하지 않고 악세사리의 효과나 역삼각형의 실루엣을 좋아하지 않고 바지를 입는 확률이 많았다.

“엉덩이가 크다”의 만족도에 따른 의복스타일의 차이는 한국여대생의 경우 “악세사리의 효과를 살린다”(p<0.5), “상하의복의 길이에 신경을 쓴다”(p<0.05), “벨트 폭의 효과를 고려한다”(p<0.01)이고 미국여성의 경우, “악세사리의 효과를 살린다”(p<0.01), “상하의복의 배색에 신경을 쓴다”(p<0.05), “상하의복의 조합에 신경을 쓴다”(p<0.05)였다. 한국여성은 엉덩이가 큰 경우 불만족 그룹이 만족그룹에 비해 악세사리의 효과를 좋아하지 않고 상하의복의 길이에 신경을 쓰며 벨트폭의 효과를 만족그룹에 비해 덜 고려하는 편이다. 미국여성은 불만족그룹이 악세사리의 효과를 덜 고려하여 한국여대생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또한 엉덩이가 크다는 부분에 불만족하는 경우, 상하의복에 고려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나 한국여대생은 길이에, 미국여대생은 배색과 디자인을 더 고려하였다.

## 2. 논의

신체만족도 및 자기존중감과 의복행동과는 밀접한 상호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고 신체만족도와 의복에 의한 세련됨과도 정적 상관관계가 있어 신체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고 의복에 대한 세련됨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미국여대생이 신체만족도가 한국여대생에 비해 높은 것은 신체만족도는 자신감과 관계의 측면에서 미국여대생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이고 신체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설명되어 진다. 의복스타일의 선호도를 보면 한국과 미국여대생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여대생은 키가 작은 것을 위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하의복의 조합이나 배색을 고려하고 팽창 소재나 색을 싫어하여 의복을 위장기능의 수행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여대생은 한국여대생보다 짧은 상의를 자주 입고 허리를 조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체를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신체에 대한 만족과의 상호관련의 측면에서 자신감의 표현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신체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관계는 자기조화이론과 자기완전이론, 사회화이론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 상징적 자기완전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잠재적으로 완전함을 추구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에 불만족할수록 자기 신체의 결함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의복을 사용한다.(황진숙, 1998) 자기조화이론과 사회화이론에 의하면 신체에 만족할수록 특히 얼굴과 상반신에 만족할수록 유행과 세련됨을 추구하고 자기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의복을 사용한다.(Sirgy, 1982) 또, 신체에 만족할수록 의복을 통해 독특한 자기묘사를 하고 특이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다.(Ford and Drak, 1982)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여대생의 세련됨의 추구나 자기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의복선호스타일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여대생은 신체에 만족할수록 투피스나 스커트를 착용하고 가슴형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선호하여 세련되게 보이는데 바지보다는 스커트가 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여대생은 스커트의 착용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신체에 만족할수록 칼라나 스커트의 형을 많이 고려하는데 이는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과 미국 여대생이 공통적으로 전신이나 상반신에 불만족할수록 타이트스커트를 피하는 결과는 상징적 자기완전이론으로 설명되어진다. 신체부위 중 하반신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부위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반신에 대한 불만족으로 타이트스커트로 인한 체형노출을 피하려는 심리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여대생은 신체에 불만족할수록 의복의 위장기능으로서 체형을 크게 하는 소재나 색을 피하려하나 미국여대생은 전반적으로 밝은 색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에 대해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높을수록 밝은 색을 선호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이미경, 이인자, 1985)

미국여대생은 “몸집이 크다” “허리가 굵다”에 대한 불만족그룹이 허리를 조이는 것과 상반신의 길이가 짧은 것을 선호하지 않아 만족그룹이 허리를 강조하는 디자인을 선호하고 이는 한국여대생과 비교해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볼 때 미국여대생이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신체에 대해 긍정적이고 신체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서 Feather, Ford and Herr(1996)의 백인과 흑인여성의 신체만족도와 의복스타일연구에서 흑인여성의 신체만족도가 높고 넓은 벨트를 더 좋아하였다는 연구보고와 비슷한 결과로, 이는 신체에 만족할수록 개성을 추구한다는 동기이론으로도 설명되어진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신체만족도와 의복스타일과의 관계와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여대생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의복스타일에 대한 선호도의 26항목 중 16개의 항목이 T-test결과 한국과 미국여대생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여대생은 미국여대생에 비해 체형을 크게 하는 소재나 색은 피하고 상하의복을 동일색으로 하기를 좋아하며 상하의복의 조합에 신경을 쓰고 무늬있는 스타킹은 선호하지 않았다. 미국여대생은 악세사리의 효과를 선호하고 가슴형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좋아하며 소매형이나 스커트길이, 형을 많이 고려하고 있고 허리를 조여 강조하기를 선호하였다.

2. 전신과 상반신 하반신의 신체만족도에 대한 유의도 검증결과, 한국여대생이 미국여대생에 비해 신체만족도가 낮았고 두 나라 공통적으로 하반신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부위에 비해 낮았다.

3. 한국과 미국여대생간에 공통적으로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타이트한 스커트는 피하고 다른점은 한국여대생은 만족도가 높을수록 투피스를 선호하고 세련된 실루엣을 좋아하는 반면에 미국여대생은 허리를 조여 강조하고 가슴을 강조하는 디자인이나 칼라형, 소매형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몸집이 크다”와 “허리가 굵다”의 항목에 대한 만족 불만족그룹의 차이는 한국여대생은 만족그룹이 소매의 디자인을 고려하고 불만족그룹이 체형을 크게 하는 소재나 색을 피하는 결과를 보였고 미국여대생은 불만족그룹이 허리를 조여 강조하는 것과 상의의 길이를 짧게 입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넓적다리가 굵다”의 항목에서는 불만족그룹이 타이트한 스커트를 피하는 경향으로 한국과 미국여대생간의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엉덩이가 크다”에서는 한국과 미국여대생간에 상하의복의 조합을 고려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나 한국여대생은 길이에, 미국여대생은 배색과 디자인을 더 고려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볼 때 신체만족도에 따라 선

호하는 의복스타일이 다르고, 두 나라간의 스타일 선호도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한국여성에 비해 미국여성이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선호의복스타일 또한 허리를 조이는 것을 좋아하는 등의 신체형을 드러내는 스타일을 좋아하여 이는 자신감의 표현이며 의복에 대한 개성표현을 하고 있다. 반면에 하반신의 불만족으로 인한 타이트 스커트를 피하여 신체의 결점을 보상받으려하는 현상을 두 나라 간의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의 의복에 대한 선호 경향은 하반신의 형태를 드러내어 강조하는 것보다는 상반신의 형태를 강조하는 것을 좋아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21C에서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전환의 환경변화로, 앞으로의 기성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시대의 유행 분석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와 그에 따른 스타일 선호도의 분석이 중요하다. 또 정보통신산업의 급진적 발전으로 인해 미래의 기성복산업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통신판매나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이루어 지리라 기대되어진다. 이로 인해 기성복산업도 통신판매에 의해 세계로의 진출이 확대되어진다고 볼 때 본 연구가 소비자들의 욕구충족을 위한 기성복 디자인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리라 기대된다.

## 참고문헌

- 박우미 (1993) 우리나라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 구조, 대한 가정학회지, 31.1
- 양명희(1983) 청소년 근로여성의 의복선택행동과 자아개념과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대대학원
- 이미경, 이인자(1985),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자아개념과의 관계성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9, 1, 9-16
- 이수지, 이인자(1996) 성인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스트레스에 따른 미니스타일선호도에 관한 연구, 복식, 30, 59-68
- 정삼호, 강혜원(1991) 성인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 2, 103-114
- 황진숙(1998) 신체만족도와 이상적인 신체상의 중요성이 의복추구 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 3, 293-302
- 홍금희(1982) 수용성, 경직성의 성격특성과 의복 행동간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 Compton, N.H. (1964) Body Image boundaries in relation to clothing fabric and design preferences of a group of hospitalized psychotic women. *Journal of Home Economics* 56(1) 40-45
- Davis, L.L. (1985) Perceived somatotype, body cathexis, and attitude toward clothing among college females, *Perceptual and motor skill*, 61, 3 1199-1205
- Ericken, M.K., & Sirgy, M.J.(1989) Achievement motivation and clothing behavior: A self image congruence analysi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 307-326
- Ford, I.M. & Drake, M.F.(1982), Attitudes toward clothing body and self: comparison of two group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82-196
- Gurel, L.M. & Gurel, L (1979) Clothing Interest :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May, 7, 5, 274-282
- Hendry, L.B., and Gillies,P.,(1978) Body type, self-esteem, school and leisure: A study of overweight, oversize and underweight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7,131-195.
- Hwang, J. and Norton, M.(1994) Body cathexis, self esteem, and clothing of men and women

- aged 55 years and older. ITAA proceeding, 98
- Kaiser, S.B. (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ew York: Macmillan
  - Kefgen, Mary and Phyllis Touchie-Spectht, (1986),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 Kwon, Y., & Parham, E.S. (1994), Effects of state of fatness perception on weight conscious women's clothing practices, *Clothing Research Journal*, 12(4), 16-21
  - Labat, K., L., & DeLong, M (1990) Body cathexis and Satisfaction with fit of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43-48
  - O. Ya, M & Nakagawa, S, (1989),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cious of body and clothing behavior, *Japan Research association Textile and End-use*, 30, 31-37.
  - Salem, S.K., (1990) Perceived body image, importance of ideal body image, self esteem and depression in femal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Los Angeles
  - Shim, S., Kotsiopulos, A, & Knoll, D, (1991), Body cathexis, clothing attitude, and their relations to clothing and shopping behavior among male consumer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9,3, 35-44
  - Sirgy, M. J. (1982) Self-concept in consumer behavior: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 287-300
  - Sugarman A. A., & Haronian, F. (1994) Body type and sophistication of body concept, *Journal of Personality*, 32, 380-394
  - Wicklund, R.A., & Gollwitzer, P.M. (1982) *Symbolic self-completion*. Hillsdale, NJ.: Laurence Erlbaum